

본지(本誌)에서는 이미 “어린이성인병 예방검진의 의의와 앞으로의 방향”(재단법인 예방의학사업중앙회 발행 ‘예방의학저널’ 1988.9.15자)에 대하여 게재한 바 있다. 이번호 부터는, 일본에서 1987년에 실시된 어린이 성인병 예방 검진에 근거하여 실시된 바 있는 '88년도 제1차 “어린이 성인병 예방 검진에 관한 연구”의 결과와 그 배경 등에 관해 게재해 보고자 한다.

어린이 성인병 예방의 문제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며 또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새롭게 환기시켜준 이 연구사업의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일선 보건 실무자에게는 좋은 보건관계 자료가 되고, 그를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어린이를 어떻게 건강하게 키울 것인가 (1)

- 소아 성인병 예방검진에 관한 연구 -

예방의학사업중앙회는 1988년도에 제1차 “어린이 성인병 예방 검진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는데, 중앙회 학술위원의 지도하에 10개 지부가 참가했던 본 연구결과를 정리해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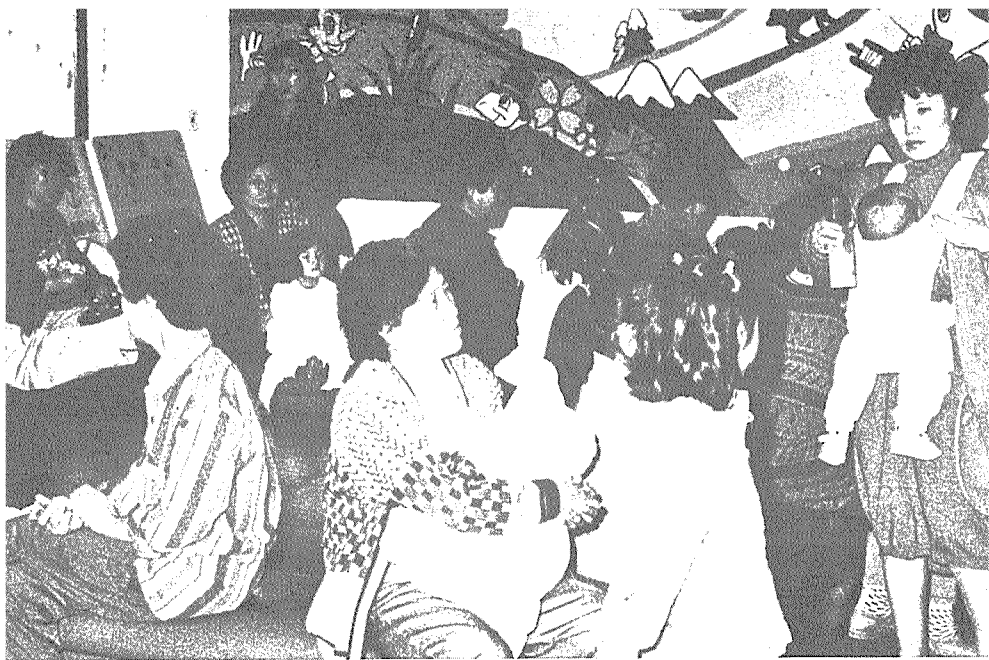
이 연구사업은, 식생활이나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성인병의 발생시기가 점차로 저연령화 되어가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이러한 현상의 예방을 위해서는 소아기에 위험요인을 조기발견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의료조치나 보건지도를 실시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거하여, 이미 중앙회 기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검토된 시행 방법에 근거하여 실시되었다.

본 글에서는 동경여자의료과대학 村田光範교수의 “어린이 성인병 예방 검진의 배경에 대한 해설 및 실시 방법”등과, 연구사업 초년도의 1만1천명에 대한 검진 결과를 종합하여 특집으로 꾸며 보았다.

1. 서론

‘어린이 성인병’이라는 말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어른들의 병으로만 알려져 있던 성인병을 이제는 어릴 때부터 예방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판단이 일반화될 만큼, 오늘날 어린이를 둘러싸고 있는 건강에 관련된 모든 상황들이 아주 심각해진 것이다.

도시형 문화생활로의 변화는, 어린이들



을 점점더 어른들의 생활 환경속으로 혼잡하고 분별할 수 없을 만큼 밀어넣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키워 나갈 것인가. 어린이 성인병 예방에 대한 연구 사업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이 문제에 답해보고자 한다.

2. 풍요로움이 가져다 주는 건강 장애

오늘날 어린이 성인병이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건강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장래에까지 심각한 문제로 된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적어도 30-40년이라는 세월을 필요로 한다. 우리 모두가 그때까지 살아남아 이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생활 습관의 상태가

계속 되는 한 이 문제가 일어날 우려의 가능성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하나의 논문이 있다.

1971년, 미국의 의학잡지에 게재되었던 “베트남에서 전사한 미국 병사들의 관동맥 질환”이 바로 그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전사한 젊은 사병 105명을 검사한 결과 45%에서 실제로 관동맥에 동맥경화성의 변화를 보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베트남 전쟁보다도 18년이나 전에 일어났던 한국 동란 때에 전사한 사병의 관동맥의 변화에 대해서도 게재하고 있는데, 전사한 병사의 77%에서 관동맥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전사한 중국병사에게서는 관동맥의 동맥경화를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한국 동란 후 미국은 풍요로움에서 오는 건강장애, 즉 동맥경화를 유발시키는 위험인자의 예방을 위해 노력했었다. 그로부터

18년동안 열심히 노력을 기울인 결과는 베트남 전쟁에서 45%라는 수치의 상태로 나타났다.

그후 이 예방 사업에 모든 열의를 쏟아 동맥경화의 위험인자(고혈압, 고지혈증, 흡연)에 대한 대응을 계속 실시한 결과 12년째인 1985년에까지 심혈관에 문제가 있지 않은 사람의 사망은 약1할이 감소했고, 관동맥 이상, 심근경색도 34.6%로 약1/3이 감소했다. 또 뇌졸중, 뇌혈관 장애는 약 반으로 줄어들었다.

결국 풍요로움이 가져다주는 건강장해의 위험인자라는 것은 아주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예방의 효과가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 실증된 것이다.

맨 처음에 썼던 것 처럼, 오늘날과 같은 생활 상태가 계속된다면 30-40년 후의 일본 어린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는, 어느정도 현실의 문제로 구체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미국 젊은이들의 예에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3. 심장병이 사망원인의 제2위에

현재 일본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일까. 1985년, 아사히신문에 게재된 인구동태 속보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심장병이 사망원인의 제2위라고 한다. 단, 그 내용을 살펴 보았을때, 반드시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이 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요컨대, 그외의 심질환에 의한 사망이 늘었기 때문에 사망원인의 2위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원인을 찾아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동해대학의 고지마(五島)교수는 By-Pass수술이나 치료기술

의 진보에 의해 사망율은 크게 눈에 띄지 않지만 젊은이들의 심근경색 발작은 늘어나고 있지 않나하는 의견을 내어놓고 있으며, 고혈압성 질환의 비율은 현저히 높아지지는 않지만 상당수 늘어나고 있다.

4. 이제부터의 어린이 보건에서 지향해야 할 사항들

이것을 어린이 보건의 입장에서 보도록 하자.

먼저, 그 지표가 되는 것은 유아(乳兒)사망율이다.

유아의 사망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유아가 아주 좋은, 풍족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종전(終戰)한해 전의 유아사망율(출생 1천명에 대해 1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망하는 비율)은 80%였다.

일본에서의 유아사망율은 1958년경부터 점차 저하되어 1986년에는 5.5%라는 수치를 나타내었다. 유아의 병에 대응했다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끝장을 보고 있다고 해도 좋을 만큼,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유아사망율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린이 보건에 있어서의 두번째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이 성인병의 1차예방, 요컨대 성인이 되어서 걸리게 되어 병이 되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 성인병에 대한 대응은 질병 구조 변화의 측면에서 보든, 어린이 보건의 측면에서 보든 바로 지금의 커다란 문제인 것이다.(계속)

<예방의학저널 1989.4.15.자.238호 전제>

마희연 역